

국어과 교육의 이념, 목표, 내용 설정 방안

이 도 영 (한국교육개발원)

<차 례>

1. 머리말
2. 6차 국어과 교육의 성격 제시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
 - (1) 6차 국어과 교육의 성격과 문제점
 - (2) 국어과 교육의 성격 설정의 기본 방향
 - (가) 국어과 교육의 이념
 - (나) 국어과 교육의 목표
 - (다) 국어과 교육의 내용
3. 결론

1. 머리말

교육과정은 한 나라의 교육의 방향을 결정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과정의 제·개정은 개인이나 특정 단체의 견해에 의해 좌지우지되어서는 안 되며, 제·개정에 대한 사회적 필요성과 국민적 합의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그 동안 우리 나라는 여섯 번에 걸쳐 교육과정이 개편되었지만, 그 개편이 그 때 그때의 사회적 필요와 국민적 합의에 의해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주지하다시피 우리 나라는 제 4차 교육과정 개정(1981) 이후 5 6년을 주기로 하여 교육과정을 전면적으로 개편하고 있다. 이러한 개편 방식은 몇 가지 점에서 문제가 있다.

첫 번째 문제점은 주기적으로 교육과정을 개편한다는 것이다. 이용숙 外(1994)¹⁾에 따르면 일본, 프랑스, 독일, 미국, 영국 등 어떤 나라도 주기를 두고 교육 과

1) 이용숙·조영태·황규호(1994), 교육과정 개혁 국제 비교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366쪽.

정 개정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지 않다. 우리의 경우 5·6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에 교육과정을 개정함으로써, 이전의 교육과정의 문제점을 제대로 반영하지도 못하고 교육과정 개정을 위한 기초 연구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두 번째 문제점은 전 교과에 걸쳐 전면적인 개정을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각 교과목의 독자성을 인정하지 않는 데서 비롯한 발상이라 할 수 있다. 각 교과목의 논리에 따라 개정이 필요하면 개정을 하고, 필요하지 않은 교과목은 그대로 두어야 한다. 그래야만 교과 교육의 학문적 성숙에도 일정 정도 기여를 하게 될 것이다.

국어과 교육과정도 그 동안 여섯 차례에 걸쳐 개정을 하였지만, 그 개정 자체가 국어과 교육의 논리나 국어과 교육의 연구 성과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다만 그 때 그 때의 교육적 조류, 즉 경험 중심 교육·학문 중심 교육·인간 중심 교육에 편승하여 개정을 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어과 교육은 미군정기의 교수 요목 시절부터 지금의 6차 교육과정에 이르기까지 그 목표와 내용에 있어서 별반 차이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다.

정준섭(1994)²⁾은 국어과 교육의 역사적 전개를 ‘태동기(교수 요목기, 1945-1955), 신생기(제 1, 2, 3차 교육과정기, 1955-1981), 발전기(제 4, 5차 교육과정기, 1981-1992), 성숙기(제 6차 교육과정기, 1992-)’로 파악하고 있지만, 그러한 전개 양상이 국어과 교육의 질적인 발전과 변화에 따른 것이 아니고, 형식적 체계화의 세련화 정도에 따른 것임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것이다.

이제 곧 7차 교육과정이 개정될 예정이다. 이번의 개정도 지난 번의 개정과 마찬가지로 주기적이고 전면적인 개정이 될 전망이다. 이런 시점에서 6차 교육과정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그 나름대로 의의가 있는 작업일 것이다. 본고에서는 국어과 교육과정 전반에 대한 검토는 하지 않을 것이며, 국어과 교육과정 중에서 국어과 교육의 성격에 초점을 맞춰 논의를 진행할 것이다.³⁾

2) 정준섭(1994), 국어과 교육과정의 역사적 전개에 관한 연구, 경원대 박사 학위 논문.

3) 국어과 교육과정의 전체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성격
2. 목표
3. 내용
 - 가. 내용 체계
 - 나. 학년별 내용
4. 방법
5. 평가

2. 6차 국어과 교육의 성격 제시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

국어과 교육을 어떻게 규정짓느냐 하는 성격 문제는 국어과 교육의 출발점이자 종착점이라 할 수 있다. 국어과 교육의 목표, 내용, 교수-학습 방법, 평가 등이 국어과 교육의 성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논의된 국어과 교육을 둘러싼 여러 문제들은 대부분이 국어과 교육의 성격에 대한 관점의 차이 때문에 비롯된 것이다. 따라서 국어과 교육과 관련된 문제들을 논의하려면 먼저 국어과 교육의 성격 문제를 살펴보아야 한다.

6차 국어과 교육과정은 각 학교급별로 ‘성격’ 항목을 두어 국어과 교육이 어떤 교과인지를 규정함으로써 국어과 교육의 성격 파악을 용이하게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성격’ 항목의 설정은 1·5차 국어과 교육과정과는 다른 6차 국어과 교육과정의 특징 중의 하나이지만, 그러한 설정 자체가 이전의 국어과 교육과 차별되는 성격을 보여 주고 있지는 않다. 그러면 6차 교육과정에 제시된 국어과 교육의 ‘성격’은 어떠한지 살펴보기로 하겠다.

(1) 6차 국어과 교육의 성격과 문제점

6차 국어과 교육과정의 ‘성격’ 항목은 대체로 이원 체제로 기술되어 있으며, 주로 앞 부분에서는 국어과 교육의 일반적인 성격을, 뒷 부분에서는 국어과 교육의 학교급별 성격을 다루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격’의 전반부는 초·중·고 모두 거의 동일하게 진술되어 있고, 후반부에서는 학교급별 강조점이 나타나 있다.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고등학교 ‘국어’가 상위 과목으로서의 ‘국어’와 하위 과목으로서의 ‘국어’로 나뉘어져 있다는 것이다. 같은 이름으로 다른 과목을 지칭하고 있어 그 자체로 문제가 될 뿐 아니라, 두 과목의 성격 구분이 모호하게 되어 있다. 본고에서는 두 과목을 국어1(상위 과목)과 국어2(하위 과목)으로 구별하여 논의하기로 하겠다.

앞 부분에 나와 있는 국어과 교육의 일반적인 성격은 크게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첫째 부분에서는 ‘국어과 교육의 정의’에 대해서, 둘째 부분에서는 ‘국어과 교육의 영역 구분과 각 영역의 역할’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

<국어과 교육의 정의>

국어과는 언어 사용 기능을 신장시키고, 국어에 관한 기본이 되는 지식을 가지게 하며, 문학의 이해와 감상 능력을 길러 주는 교과이다. 또한, 국어과는 국

어의 발전과 민족의 언어 문화 창조에 이바지하려는 뜻을 세우고, 올바른 민족 의식과 건전한 국민 정서를 함양하는 교과이다.

<국어과 교육의 영역 구분과 각 영역의 역할>

국어과는 언어 사용 기능, 언어, 문학의 세 영역으로 구성된 교과이다.

언어 사용 기능 영역에서는 의사 교환 신장으로서의 표현 기능과 이해 기능을 길러 주며, 이를 통하여 합리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력을 길러 준다.

언어 영역에서는 국어에 관한 기본이 되는 지식을 학습시켜, 국어를 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을 길러 준다. 또한, 언어 현상에서 규칙을 발견할 수 있는 탐구 능력도 길러 준다.

문학 영역에서는 문학 작품을 이해할 수 있는 지적 능력을 길러 준다. 그리고 문학 작품 감상을 통하여 즐거움을 느끼게 하고, 삶의 다양한 모습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이해하게 하며, 풍부한 상상력을 길러 준다.

위의 내용은 초등학교 국어, 중학교 국어에 동일하게 진술되어 있지만, 고등학교 교에서는 사정이 다르다. 고등학교 국어1에는 '국어과 교육의 정의'만 나와 있으며, 고등학교 국어2에는 '국어과 교육의 영역 구분과 각 영역의 역할'만 나와 있다.

위의 내용만으로 놓고 볼 때, 국어과 교육은 다음의 다섯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1. 언어 사용 기능
2. 국어에 관한 기본이 되는 지식
3. 문학의 이해와 감상 능력
4. 국어의 발전과 언어 문화 창조
5. 올바른 민족 의식과 국민 정서

국어과 교육을 위와 같이 정의하는 것에 대해서 그 동안 많은 비판이 있어 왔다. 비판의 주된 초점은 서로 다른 층위에 있는 요소들이 대등하게 제시되어 있다는 것이다. 뒤에서 살펴보게 되겠지만, 실제로 1, 2, 3은 국어과 교육의 세 영역이기도 하며, 그것 자체가 국어과 교육에서 가르쳐야 할 내용이 되기도 한다. 그렇지만 4, 5는 그것 자체가 국어과 교육에서 가르쳐야 할 내용인지, 아니면 1, 2, 3을 통해 도달해야 할 목표인지 구분이 모호하다.⁴⁾ 또한 1, 2, 3도 서로간의

관계가 대등한 것으로 언급되고 있지만, 실제로 세 영역은 각 영역에서 다루는 언어의 단위나 주요 관심사에서 서로 이질적이다.⁵⁾

이의 해결을 위해, 최영환(1994)에서는 “국어 교육의 목적(성격)은 교육의 일반 목적의 하위 층위에 있으면서 다른 교과와 구별되는 대등한 특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제시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국어과 교육의 성격을 ‘언어 사용 능력의 신장’으로 단일화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⁶⁾ 한편 김대행(1996)은 국어과 교육에서 소외된 “민족 문화와 국민 의식 및 국민 정서”의 문제를 명료하게 구체화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우리는 국어과 교육의 성격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두 가지 방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하나는 ‘언어 사용’을 중심으로 국어과 교육을 통합하는 수렴적 방향이고, 다른 하나는 ‘언어 사용’의 개념 폭을 넓혀 국어과 교육을 ‘문화, 의식, 정서’로까지 나아가게 하는 확산적 방향이다. 이 두 방향은 서로 대립되는 것이 아니고, 각각 국어과 교육의 출발점과 지향점을 보여 주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대립적인 양상을 띠어 왔다.

국어과 교육의 독자성과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언어 사용’을 국어과 교육의 중심축으로 삼아야 한다. ‘언어 사용’이야말로 국어과 교육을 다른 교과와 차별화하면서 국어과 교육의 존재 기반이 되는 핵심 개념인 것이다. 이런 점에 착안하여 노명완(1988;45)은 국어과 교육의 궁극적인 목표를 언어 사용 기능의 신장에 두고, 이의 실현을 표현·이해의 언어 활동(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을 통한 교수·학습에 두었다. 그리고 언어 지식과 문학 지식은 표현·이해의 언어 활동에 대한 보조적인 지식 차원으로 이해하였다. 그러나 노명완의 이런 견해는 언어 사용을 국어과 교육의 중심 개념으로 부각시킨 공은 인정되지만, ‘기능 교육’의 경도, 언어 도구론에의 치중, 개인적인 언어 사용에의 국한, 문학 교육의 의의 축소’ 등으로 인해 많은 비판을 받아 왔다. 특히, 김대행(1996;22-24)은 이의 시정을 위해 “문화·의식·정서의 행방”을 찾고 “도구 교과론”과 “기능론”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노명완(1992;45-46) 자신도 “지금까지의 언어 사용 기능 신장 교육에서는 언어 사용을 한 개인의 심리적인 측면에만 국한시키거나 또는 조금 넓게는 의사 소통의 수단”으로만 보아 왔다면서, “이같은 개별적인 언어 사용은 사회 속에서 그리고 문화적인 맥락 속에서 이루어지

4) 김대행(1996), 국어과 교육과정 분석과 수준별 교육과정 개발, 교육과정연구 14권 2호, 22쪽 참고.

5) 최현섭 外(1996), 국어교육학개론, 삼지원, 32쪽 참고.

6) 최영환(1994), 국어 교육의 목표와 내용 체계, 국어교육학연구 4집, 84-86쪽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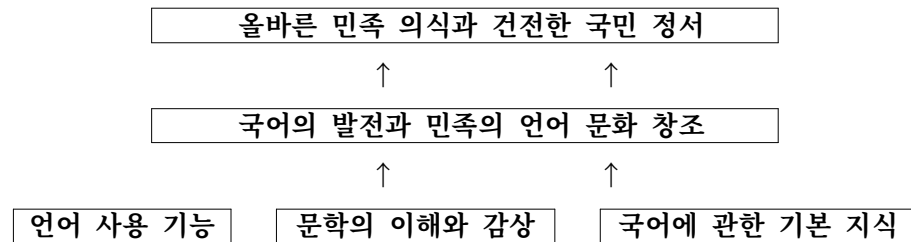
기 때문에, “언어 사용의 심리적 측면, 언어 사용의 사회적 측면, 언어 사용의 문화적 측면”에 대한 연구가 있어야, “국어 교육의 개념과 성격을 바로 세우고 더 나아가 지금까지의 국어 교육을 더욱 깊고 넓게 확충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하였다.

따라서 앞으로 국어과 교육의 성격을 논의할 때에는 다음의 세 가지 사항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1. 국어과 교육의 출발점은 언어 사용이다.
2. 언어 사용에는 개인적·심리적인, 사회적·문화적인 측면이 존재한다.
3. 언어 사용의 개인적·심리적인 측면과 사회적·문화적인 측면은 서로 깊은 관련이 있다.

이런 점에서 6차 교육과정의 정의에 제시된 다섯 가지 요소는 언어 사용의 개인적·심리적인, 사회적·문화적인 측면을 다 반영하고 있는 듯이 보인다. 문제는 위의 다섯 가지 요소의 관계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다는 점이다. 그런 점에서 지금의 국어과 교육은 어찌 보면 지향점을 상실한 교육이라고 할 수도 있다. 따라서 우리는 다섯 요소의 관계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요소들 간의 관계를 설정해야 할 것이다.

교육과정에 나와 있는 요소들만을 놓고 볼 때, 우리는 다음과 같은 위계 설정이 가능함을 알 수 있다.



위의 도식에 따르면, 국어과는 “언어 사용 기능을 신장시키고, 국어에 관한 기본 지식을 가지게 하며, 문학의 이해와 감상 능력을 길러, 국어의 발전과 민족의 언어 문화 창조에 이바지함으로써, 올바른 민족 의식과 건전한 국민 정서를 함양하는 교과”가 된다. 이러한 정의는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의 국어과 교육의 무지향성을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 준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할

것이다.

다 알다시피 지금의 국어과 교육은 ‘언어 사용 기능의 신장’을 중시하고 있다. 그러나 ‘언어 사용 기능’을 신장시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언급이 없다. 즉, 언어 사용 기능을 신장시켜 어떤 인간을 만들 것인가에 대한 전망이 없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국어과 교육은 ‘말만 잘 하는 인간, 글만 잘 쓰는 인간’을 양산할 가능성이 있으며, ‘기능주의 교육, 기술 교육’이라는 오명을 쓰게 되는 것이다.⁷⁾ 이용주(1995;24)에서도 “철저한 언어교육이란 말재주나 부리고 아 니면 웅변이나 달변의 능력을 기르는 것이 결코 아니”라면서, 국어과 교육이 “인간의 형식, 인격의 도야, 인간 자질과 능력의 향상”을 위해서 힘써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2) 국어과 교육의 성격 설정의 기본 방향

국어과 교육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어과 교육의 목적, 목표, 내용 층위에 대한 심도 깊은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즉, ‘언어 사용 기능의 신장’이 국어과 교육의 목적인지 목표인지 내용인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Elliot W. Eisner(1991)는 aims, goals, objectives를 구분하여 목적과 목표를 논의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aims는 “교육에 대하여 어떤 그룹이 갖고 있는 가치관을 밝히는 일반적인 선언”이며, aims에는 “한 지역 사회나 그룹이 갖고 있는 가치관과 방향성”이 나타나 있다. 반면에, goals는 “aims와 objectives의 중간에 위치한 어떤 의도”를 선언하는 것으로, “어떤 과목이나 프로그램에 따르는 지향점”을 기술한 것이다. 또한 goals는 “예상되는 결과에 중점을 두며, 교육과정 설계자에게 교육과정의 내용을 선택하는 기초”를 제공한다. objectives는 “교육을 받은 후에 학생이 어떤 능력을 갖게 될 수 있는가를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이다. “출발점과 도달점에서의 행동 차이를 명료하게 드러내는 것이 objectives의 특징”이며, 이들의 관계는 “aims에서 goals가 도출되고 goals에서 objectives가 도출”된다.⁸⁾

이와는 달리, Ronald V. White(1988)는 “goals를 가장 일반적인 수준에서 교육이란 제도적 실천 전체를 포괄하는 궁극적이고 장기적인 것으로, objectives를 특정 교과목을 통한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상대적으로 긴 기간에 걸쳐 획득되는

7) 김대행(1995), 국어교과학의 지평, 서울대학교 출판부, 88-89쪽 참고.

8) Elliot W. Eisner(이해명 옮김), 교육적 상상력, 단국대학교 출판부, 1991. 170-172쪽.

것으로, aims를 아주 구체적인 결과로서 단기간에 걸쳐 획득되는 것”으로 구분하고 있다.⁹⁾

이러한 아이즈너와 화이트의 견해는 각각 김창원(1992)과 김상옥(1996)에 수용되어, 김창원에서는 ‘교육을 수행하는 근거나 이유 혹은 중요성에 해당하는 목적(aims, goals)과 학습자가 도달해야 할 상태 혹은 도달한 상태에 해당하는 목표(objectives)’로, 김상옥에서는 ‘교육과정적 층위인 이념(goals)과 교과목의 층위인 목표(objectives), 교실 수업의 층위인 내용(aims)’으로 교육의 층위를 구분하고 있다.

위의 견해들을 받아들인다면, 국어과 교육에서 설정할 수 있는 층위는 ‘이념, 목적, 목표, 내용’ 네 가지가 된다. 이 중 ‘이념’과 ‘목적’은 성격상 같은 것이기 때문에 국어과 교육의 층위는 세 가지 정도로 설정하는 것이 온당할 듯싶다. 용어의 문제는 김상옥(1996;7)이 지적한 대로, “목적과 목표의 개념이 지나치게 일상적인 어법에 침윤한 나머지, 이들 두 용어 사이의 차이가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않으므로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목표’는 1차 교육과정 이후로 계속 사용되고 있는 용어이므로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목적’은 ‘목표’와의 혼동을 피하고 ‘목표’보다 상위의 개념임을 드러내기 위해 ‘이념’이라는 용어로 대신하고자 한다.¹⁰⁾

그러면 무엇을 국어과 교육의 이념, 목표, 내용에 담을 것인가? 그리고 각 층위들을 어떻게 변별하고 관련지을 것인가? 원론적이고 일반적인 수준에서 이 문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될 것이다.

국어과 교육의 이념: 국어과 교육을 수행하는 근거, 중요성, 방향성

국어과 교육의 목표: 국어과 교육 고유의 지향점

국어과 교육의 내용: 학생들이 실제로 갖게 되는 구체적인 지식 또는 능력

(가) 국어과 교육의 이념

먼저 국어과 교육의 이념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국어과 교육의 이념 문제는 지금까지 거의 논의가 되지 않았다.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한 것으로는

9) 김상옥(1996), 문학교육의 이념과 목표, 서울사대 국어교육연구소 학술발표회 자료집 2. 6 쪽에서 재인용.

10) ‘이념’의 사전적 의미가 ‘어떤 것을 이상적으로 여기는 생각이나 견해(금성국어대사전)’이므로, ‘목표’의 상위 개념으로 적절하다. 또한 현재 ‘국어교육의 이념’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기도 하므로(최현섭 외, 국어교육학개론, 삼지원, 1996, 1부 1장), ‘이념’이라는 용어를 사용해도 별 무리가 없을 것이다.

최현섭 外(1996)를 들 수 있다. 최현섭 外(1996:25)에서는 국어교육의 교육적 보편성과 교과적 독자성을 고려하여 국어과 교육의 이념 설정의 기본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 첫째, 국어교육의 이념은 인간의 삶 중에서 언어적 삶을 지향하여야 한다.
- 둘째, 국어교육에서는 인간의 언어적 삶이 건강하고, 자주적이고, 창의적이고, 도덕적이기를 지향하여야 한다.
- 셋째, 국어교육에서는 사람들이 건강하고 자주적이고 창의적이고 도덕적인 언어 생활을 하면서 나아가 민주 사회와 세계를 세우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러한 기본 방향을 바탕으로 최현섭 外(1996)에서는 국어교육의 이념을 “국어교육은 학생들로 하여금 국어 생활에 관한 지식, 기능, 태도를 익혀 개인적 삶과 사회공동체적 삶을 바르고 윤택하게 하도록 함에 목적을 둔다.”로 정의내리고 있다.¹¹⁾

위의 기본 방향과 정의는 국어과 교육을 ‘언어 사용 기능’에 함몰시키지 않고, 국어과 교육의 방향성을 보여 주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지만, 두 가지 점에서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첫 번째 문제는 국어과 교육의 교과적 독자성(학생들로 하여금 국어 생활에 관한 지식, 기능, 태도를 익히게 하는 것)과 국어과 교육의 교육적 보편성(개인적 삶과 사회공동체적 삶을 바르고 윤택하게 하도록 함)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즉, 학생들이 국어 생활에 관한 지식, 기능, 태도를 익힌다고 해서 개인적 삶과 사회공동체적 삶을 바르고 윤택하게 한다는 보장이 없다는 것이다. 두 번째 문제는 국어과 교육의 이념을 즉, 지향점을 상당 부분 6차 교육과정에서 기르고자 하는 인간상에 기대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어과 교육의 이념은 자칫 잘못하면 교육과정이 바뀔 때마다 그 모습이 달라질 수가 있다. 세 번째 문제는 국어과 교육의 교과적 독자성을 ‘국어 생활에 관한 지식, 기능, 태도’에만 국한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전통적으로 국어과 교육의 내용으로 인식되어 온 문학, 문법 등도 국어과 교육의 교과적 독자성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국어과 교육의 교육적 보편성’과 ‘국어과 교육의 교과적 독자성’에 대한 일면적 해석 때문이다. 대부분의 논의들

11) 최현섭·최명환·노명완·신현재·박인기·김창원·최영환, 국어교육학개론, 삼지원, 1996. 25-26쪽.

은 ‘국어과 교육의 교육적 보편성’을 교육과정의 총론이나 교육법에 기대어 해석하고 있다. 이러한 해석법만을 고려한다면, 국어과 교육은 교육과정과 교육법이 제·개정될 때마다 그 이념이 바뀌어야 한다. 물론 상위법인 교육법이나 교육과정이 바뀔에 따라 국어과 교육의 이념이 달라질 수 있고, 그러한 변화 자체를 나쁘다고 할 수는 없다. 또한 어느 정도 상위의 교육과 일치하는 것이 교육의 일관성을 위해서도 좋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측면만을 강조할 경우, 국어과 교육은 교육법이나 총론의 교육 목표에 종속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국어과 교육의 교육적 보편성’을 다른 측면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즉, ‘국어과 교육의 교육적 보편성’을 교육법이나 교육과정과 일정 정도 거리를 둔, 교육법과 교육과정의 변화에 편승하지 않는, 국어과 교육이 가지고 있는 교육적 보편성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국어과 교육은 상위의 교육과 관계없이 국어과 교육의 본질적이고 항구적인 이념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 이럴 경우 문제가 되는 것은 ‘국어과 교육의 교과적 독자성’과의 충돌이지만, ‘국어과 교육의 교과적 독자성’을 국어과 교육의 목표와 내용에서의 독자성으로 해석한다면 별 무리가 없을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국어과 교육의 이념 설정의 기본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 첫째, 국어과 교육의 이념은 국어과 교육의 이상적인 모습을 보여 줄 수 있어야 한다.
- 둘째, 국어과 교육의 이념은 국어과 교육의 목표, 내용과 밀접한 관련을 맺어야 한다.
- 셋째, 국어과 교육의 이념은 교육법이나 교육과정에 관계없이 어느 정도 항존성을 지녀야 한다.

그러면 무엇을 국어과 교육의 이념으로 삼을 것인가? 국어과 교육의 이념은 위의 이념 설정의 기본 방향을 만족시켜야 하며, 앞에서 제시한 국어과 교육의 무지향성을 극복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필자는 6차 교육과정에 나와 있는 ‘국어의 발전과 민족의 언어 문화 창조’를 수정·보완하여, 국어과 교육의 이념을 ‘국어의 발전과 민족의 언어 문화의 이해와 창조’에 두고자 한다.

(나) 국어과 교육의 목표

이번에는 국어과 교육의 목표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현재 6차 국어과 교육의 목표는 학교급별로 제시되어 있다. 그것을 보이면 다음과 같다.

<초등학교>

국어 생활을 바르게 하고, 국어를 소중히 여긴다.

가. 말과 글을 통하여 생각과 느낌을 바르게 표현하고 이해하게 한다.

나. 국어에 관한 초보적인 지식을 익히고, 국어를 올바르게 사용하게 한다.

다. 문학 작품을 즐겨 읽고, 아름다운 정서와 풍부한 상상력을 기르게 한다.

<중학교>

국어 생활을 바르게 하고, 국어와 민족의 언어 문화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가지게 한다.

가. 말과 글을 통하여 생각과 느낌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이해하게 한다.

나. 국어에 관한 기초적인 지식을 익히고, 국어를 바르게 사용하게 한다.

다. 문학에 관한 기초 지식을 갖추고, 작품 감상력과 상상력을 기르게 한다.

<고등학교 국어1>

국어 생활을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하며, 언어와 국어에 관한 체계적인 지식을 갖추고, 문학의 이해와 작품 감상 능력을 기르며, 국어의 발전과 민족의 언어 문화 창조에 이바지하게 한다.

가. 말과 글을 통하여 생각과 느낌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이해하며, 언어 사용에 대하여 바르게 판단하는 태도를 가지게 한다.

나. 언어와 국어에 관한 체계적인 지식을 익히고, 국어를 정확하게 사용하게 한다.

다. 문학 작품을 통하여 문학에 관한 체계적인 지식을 갖추고 창조적인 체험을 함으로써 미적 감수성을 기르며, 인간의 삶을 총체적으로 이해하게 한다.

<고등학교 국어2>

가. 말과 글을 통하여 생각과 느낌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이해하며, 언어 사용에 대하여 바르게 판단하는 태도를 가지게 한다.

나. 언어와 국어에 관한 일반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국어를 바르게 이해하고 사용하게 한다.

다. 문학에 관한 일반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작품을 바르게 이해, 감상하며, 인간의 삶을 총체적으로 이해하게 한다.

위의 목표 제시는 학교급별 목표들 간의 단계화와 위계화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목표가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지 않아, 그 동안 많은 비판을 받아 왔다. 비판을 받은 주된 원인은 국어과 교육을 견인할 수 있는 전체 목표가 없었기 때문이다. 전체 목표를 결정한 뒤, 그 목표를 학교급별로 상세화해야 할 것이다. 그러면 무엇이 국어과 교육의 전체 목표가 될 수 있는가?

국어과 교육의 목표는 다른 교과와 구별되는 국어과 고유의 지향점이어야 한다. 5차 교육과정 이후 대부분이 국어과 교육의 목표가 ‘언어 사용 기능 또는 능력의 신장’이라는 점에 별 이의를 달지 않지만, 그 용어법과 함의하는 바는 논자마다 약간씩 다르다.

‘언어 사용 기능’의 ‘언어’는 ‘국어’로 바뀌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이의 대표적인 것으로 김정환(1991;26-30)을 들 수 있다. 김정환은 국어과 교육이 언어 교육과 문학 교육으로 양분되는 바람직하지 못한 경향을 방지하기 위해 ‘국어’라는 용어를 사용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그리고 실제로 학생들이 사용하는 언어가 ‘국어’이므로 ‘언어 사용 기능’의 ‘언어’는 ‘국어’로 바꾸는 것이 좋을 것이다.

한편 ‘사용’이라는 용어는 ‘사용’이라는 말이 불러오는 인위적이고 기술적인 인상 때문에 ‘활동’으로 대체해야 한다는 주장¹²⁾이 있다. 김대행은 “실제로 언어 생활은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언어로 활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언어 사용 기능’의 ‘사용’은 ‘활동’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최현섭 外(1996;52)에서도 이 용어법을 받아들이고 있고, ‘사용’이라는 말 자체가 ‘표현’에 더 중점을 둔 용어법이므로 ‘사용’은 ‘활동’으로 대체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기능’이라는 용어는 그 동안 많은 오해를 불러 일으켰다. 이에 대해 노명완(1992)은 “인간의 정신과 그 작용을 연구하는 심리학자들은 인간의 정신 능력을 능력(abilities)으로도 표현하고 기능(skills)으로도 또 전략(strategies)으로도 표현한다”고 하면서, “인간의 정신 능력을 지칭하는 ‘기능’이라는 용어가 어찌된 일인지 국어교육의 논의에서는 한낱 단순 반복적 훈련이나 기계적 연습으로 숙달이 가능한 낮은 수준의 ‘재주’로만 이해되고 있다”는 것을 안타까워 하고 있다. 이러한 생각은 몇 가지 점에서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하나는 영어에서나, 심리학에서는 ‘abilities, skills, strategies’가 내포하는 의미가 같을 수 있으나, 우리말에서는 ‘능력, 기능, 전략’이 의미하는 바가 서로 다르다는 점이고, 또 하나는 국어과 교육의 내용 진술에 ‘낮은 수준의 재주’로 이해될 만한 요소가 들어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능력, 기능, 전략’ 등의 개념 정의를 명확하게 해야 할 것이다. 본고에서는 잠정적으로 ‘능력’을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일반적인 힘’으로, ‘기능’을 반복적인 훈련과 연습으로 도달할 수 있는 것으

12) 김대행, 국어교과학의 지평,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5. 51쪽.

로, '전략'을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처리 방법이 필요한 것'으로 지칭하고자 한다. 이럴 경우 '능력'은 '기능'과 '전략'을 포함하는 상위 개념이 된다.¹³⁾ 따라서 '언어 사용 기능'의 '기능'은 '능력'으로 바꾸어야 한다.

(다) 국어과 교육의 내용

이번에는 국어과 교육의 내용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겠다. 국어과 교육의 내용은 기본적으로 언어와 언어 사용의 여러 양상들을 기반으로 하여 설정되어야 한다. 이 때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준거들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다.

첫째, 언어의 기능(機能)을 준거로 하여 내용을 설정할 수 있다. 이는 언어 사용의 여러 요소들을 관련지어 언어 사용의 목적을 보여 준다는 점에서 이점이 있으며, 현재 6차 교육 과정에서도 '정보 전달, 설득, 친교 및 정서 표현' 등이 설정되어 있다. 언어의 기능을 얼마만큼 세분화해서 제시할 것인가가 문제가 된다.

둘째, 텍스트 유형을 준거로 하여 내용을 설정할 수 있다. 언어 사용은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의 텍스트를 생산하거나 이해하는 것이므로, 텍스트를 중심으로 내용을 설정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언어 사용의 지향점을 분명하게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점이 있으나, 수많은 텍스트를 어떻게 유형화하여 가르칠 것인가가 문제가 된다.

셋째, 텍스트 생산 및 이해 방식을 준거로 하여 내용을 설정할 수 있다. 여기서의 방식은 언어 사용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언어 사용의 내적 기제라 할 수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국어교육의 본질적인 내용이라고 여기는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방식들을 어떻게 도출하여 위계화시킬 수 있느냐는 것이다.

넷째, 언어적 사고력을 준거로 하여 내용을 설정할 수 있다. 언어 사용과 사고는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설정은 타당하다고 할 수 있으며, 현재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의 평가 기준도 사고력 중심으로 되어 있다. 이 방식은 도구 교과로서의 국어과 교육의 위상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지만, 국어교육에서 가르쳐야 할 사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논의의 여지가 있다.

아는 바와 같이 6차 교육 과정에서는 국어과 교육의 영역을 '언어 사용 기능 영역, 언어 영역, 문학 영역'으로 나누고, 그것에 따라 국어과 교육의 내용을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언어, 문학'의 여섯 영역에 걸쳐 설정하고 있다. 이러한 영역 구분에 따른 내용 설정은 나름대로의 의의와 타당성을 지니고 있고, 국어과 교육에 공헌한 바가 없지 않으나, 그에 따른 폐해와 문제점도 적지 않다.¹⁴⁾

13) 능력이 전략과 기능의 상위 개념임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엄훈(1996), 전략 중심의 쓰기 교수·학습 방법 연구,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석사학위논문, 2장'을 들 수 있다.

특히 국어과 교육의 핵심 영역이라 할 수 있는 언어 사용 기능 영역은 ‘말하기·듣기·읽기·쓰기’의 네 영역으로 구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들은 각 영역의 본질적인 내용이라고 할 만한 것들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빚게 된 가장 큰 원인은 앞에서 제시한 내용 설정의 준거들을 명확한 원칙 없이 혼합하여 내용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상적으로 말하자면, 국어과 교육의 내용은 ‘언어 사용 기능 영역’, ‘언어 영역’, ‘문학 영역’을 유기적으로 관련지어 하나로 통일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문제는 많은 시간과 연구를 필요로 하는 일이고, 본고의 목적이 국어과 교육의 성격 검토이므로 더 이상 논의하지 않기로 하겠다. 다만 국어과 교육에서 가르쳐야 할 내용을 분명히 해야 할 필요는 있다.

먼저 ‘언어 사용 기능’ 영역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용어법이 문제가 되므로, ‘표현과 이해’ 영역으로 그 용어를 수정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리고 ‘표현과 이해’ 영역은 각각 ‘표현 기능, 표현 전략’, ‘이해 기능, 이해 전략’, 또는 ‘정확한 표현, 효과적인 표현’, ‘정확한 이해, 효과적인 이해’로 그 영역을 세분화할 수 있다.

‘언어’ 영역은 ‘언어’라는 말이 내포하는 의미가 명확하지 않고, 다른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으므로 ‘국어 지식’ 영역으로 바꾸는 것이 합리적일 듯싶다. ‘국어 지식’ 영역은 ‘국어에 관한 문법적·의미적 지식, 국어에 관한 일반적 지식(한글의 탄생 과정, 한글의 제자 원리 등), 언어 일반에 대한 지식’ 등으로 그 영역을 하위 분류할 수 있다.

‘문학’ 영역은 그 동안 ‘이해와 감상’에 초점을 맞춰 왔기 때문에 ‘표현’ 영역이 등한시되었다. 그러나 이것은 앞에서 제시한 국어과 교육의 이념(국어의 발전과 민족의 언어 문화의 이해와 창조)과도 어긋나므로, ‘문학의 표현’ 영역을 ‘문학’ 영역에 반드시 포함해야 할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여 국어과 교육의 이념, 목표,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국어과 교육의 이념: 국어의 발전과 민족의 언어 문화의 이해와 창조

국어과 교육의 목표: 국어 활동 능력의 신장

국어과 교육의 내용: 표현과 이해, 국어 지식, 문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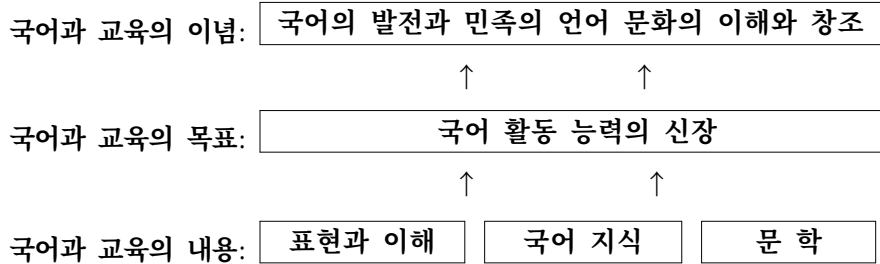
14) 이러한 폐해와 문제점에 대해, 이성영(1995;3-4)에서는 세 영역이 유기적인 관련성이 없어 국어과의 내용 자체가 기형의 모습을 띠고, 세 영역이 상호 배타와 간섭으로 인해 공백이 생기거나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최현섭 外(1997;32)에서는 세 영역의 이질성으로 인해 국어교육의 학문적 성숙에 장애가 된다고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국어과 교육의 정의를 내리면 다음과 같다.

국어과는 표현과 이해 활동 능력을 신장시키고 국어에 대한 지식을 가지게 하며 문학의 이해와 표현 능력을 길러, 국어의 발전과 민족의 언어 문화의 이해와 창조에 이바지하는 교과다.

3. 결론

지금까지 6차 국어과 교육의 ‘성격’ 항목을 중심으로 국어과 교육의 성격에 대해 알아보았다. 6차 국어과 교육은 상호 이질적인 ‘언어 사용 기능, 국어에 관한 기본이 되는 지식, 문학의 이해와 감상 능력, 국어의 발전과 언어 문화 창조, 올바른 민족 의식과 국민 정서’의 다섯 요소가 대등하게 제시되어 있어, 무엇이 목표이고 무엇이 내용인지 층위의 혼란을 보이고 있다. 이의 해결을 위해 필자는 국어과 교육의 층위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그 동안 국어과 교육의 성격 논의는 국어과 교육의 ‘도구적 성격’에 초점을 맞춰 진행되어 왔다. 국어과 교육이 ‘도구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그 도구를 어디에 무슨 목적으로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부진한 상태이다. 그런 점에 비추어 볼 때, 위의 도식은 국어과 교육의 방향성을 분명히 하고 있어 나름대로 의의가 있다 할 것이다. 아쉬운 것은 필자의 능력 부족으로 각 층위의 관계와 그것들이 담고 있는 구체적인 내용을 명확하게 밝히지 못했다는 점이다. 앞으로 국어과 교육의 성격에 관한 논의의 활성화를 기대하며 글을 맺고자 한다.

<참고문헌>

- 김대행, 국어교과학의 지평,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5.
- 김대행, 국어과 교육과정 분석과 수준별 교육과정 개발, 교육과정연구 14권 2호, 1996.
- 김상욱, 문학교육의 이념과 목표, 서울사대 국어교육연구소 학술발표회 자료집 2, 1996.
- 김정임, 교육과정의 적합성에 대한 이론적 접근, 이화여자대학교 교육학과 석사 학위 논문, 1985.
- 김정환, 국어과 교육의 목표와 내용 구조 연구, 서울대 국어교육과 석사 학위 논문, 1991.
- 김창원, 문학교육과정 설계의 절차와 원리-목표 및 내용의 조직, 국어교육 77·78, 1992.
- 노명완, 국어교육론, 한샘, 1988.
- 노명완, 국어 교육의 개념과 목표, 서울교육대학 초등교육연구소, 1992.
- 서 혁, 담화의 구조와 주제 구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박사 학위 논문, 1996.
- 심영택, 문법 지식의 확대 사용 전략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박사 학위 논문, 1995.
- 엄 훈, 전략 중심의 쓰기 교수·학습 방법 연구,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석사 학위 논문, 1996.
- 이도영, 언어관에 대한 비판적 고찰과 국어교육에의 적용 연구,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석사 학위 논문, 1993.
- 이도영, 국어교육과 언어 사용 능력, 선청어문 22집, 1994.
- 이성영, 국어교육의 내용 연구,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5.
- 이용숙·조영태·황규호, 교육과정 개혁 국제 비교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1994.
- 이용주, 국어교육의 반성과 개혁,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5.
- 정준섭, 국어과 교육과정의 역사적 전개에 관한 연구, 경원대학교 박사 학위 논문, 1994.
- 최영환, 국어 교육의 목표와 내용 체계, 국어교육학연구 4집, 1994.
- 최현섭·최명환·노명완·신헌재·박인기·김창원·최영환, 국어교육학개론, 삼지원, 1996.
- 심영택·위호정·김봉순 옮김, 언어교수의 기본 개념, 서울사대 국어교육연구소, 하우, 1995.
- Elliot W. Eisner(이해명 옮김), 교육적 상상력, 단국대학교 출판부, 1991.
- Ronald V. White, The ELT Curriculum, Basil Blackwell, 1988.